23. 부활과 성서 다시 쓰기 (마지막 회)

마가복음에는 소위 예수의 부활이야기가 없다. (혹은 properly saying, 없는 듯 하다.) 서기 4 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시내산 본(Codex Sinaiticus)에는 마가복음이 16 장 8 절로 끝나며, 후에 여러 부활이야기가 첨부되었다. 성서학자들 간에는 이 첨가물(?)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며, 기존 교회들은 부활이야기가 없었다는 주장에 영 심기가 불편하다. 이 둘을 아우르는 다른 방법/이해는 없을까?

A. 부활이야기

1. 마가복음의 부활이야기
   - 6:14-15 이에 **그의**[i] 이름이 **드러나니** 헤롯왕이 **들은지라 어떤이들이**[ii]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이**들은** 이가 엘리야라 하고… (AWP)
   - 9:9 저희가 산에서 내려 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**살아나지 않는 한**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(AWP)
   - 몸(혈과 육)이 다시 사는 것??? 참고. 마 28:52-53 (이것 역시,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해야)..
   - 죽은 자/앞서 산 자(先生)의 삶/철학/가르침이 제자들/followers 에게 되살아나 운동하는 것을 경험.

2. 부활과 正義
   - (죽은 자의) 다시 살기—죽은 자/앞서 산 자(先生)의 삶이 옳았다는 주장/외침
   - 세상의 지배자/지배체제/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처형 당했던 삶이 최고 법정으로 상징되는 하느님/하느님 나라운동/예수의 복음 앞에 섬 => 마지막 희망/믿음

B. 성서 다시쓰기

1. 성서 내(內) 증거
   - 성서 신학의 큰 줄기: 아브라함/다윗 전승 vs. 모세/신명기 전승
   - 예언자 전승
     - 참/거짓 예언 논쟁 (이단논쟁)—competing prophecies. 대표적인 예. 하나냐 vs. 예레미야
     - 성서 간의 충돌. 고전적 실례. 아브라함/사라 (유대인 정체성)에 대한 이해. 이사야 51:1-2 vs. 에스겔 33:24

2. 왜 다시 쓰나?
   - "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" (막 16:8) => 이대로 좋은가? (16:9ff). 초기 문서가 16:8 로 끝난 것에 대해 '적절한' 끝맺음 부분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. 16:8 절 자체로 충분히 독자들의 결단을 요구. (너, 뭐 하세요?)
   - 내/우리 이야기. 내가 성서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, 나와 상관없는 (다른 동네) 이야기.
   - 성서를 삶의 지표로 삼는다. 정체성, 행동규범 확립 (눅 10:25-28). 성서는 그리스도인의 i.d.(신분증)도 아니고, 교회갈 때 쓰는 입장표도 아니다.

결론. 끝나지 않은 부활이야기—The story continues….

1. 부활(復活) 혹은 저 세상을 기다림이 아니다.
2. 계속된 삶. 내 삶은 예수의 부활한 삶이다.
   - 근거: 예수의 발바취. "그가 앞서 걸어 가셨다/앞서 사셨다 (προάγω 14:28; 16:7. cf. 10:32)
   - 죽음/부활은 끝이 아니라 (다시) 시작이라는 말=> 마가복음 처음부터 다시 읽으라. Are you in there?

Reflections:

1. 마가복음 16 장 부활이야기에는 “믿지 않음”/믿음/믿음 없음 등 표현이 여러번 등장한다 (15:11, 13, 14, 16, 17). 무슨 뜻일까?

2. 내가 성서를 쓴다면? (내가 사는 예수의 부활이야기는?)

[i] “예수의”
[ii] “헤롯왕이 듣고 가로대” => 본문(Nestle-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7판)에 의하면, 주어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으며 세 부류의 “어떤 이들”의 의견을 나열하고 있다. 한글번역본은 아마도 마 14:1-2을 참조한 듯하다.